

다음 장부터 시작

碩士學位論文

외모관리인식이 직업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미용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

- 전문대학 미용전공대학생을 중심으로 -

2006年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尹 貞 姬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金 光 淑

외모관리인식이 직업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미용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

- 전문대학 미용전공대학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Effects of Awareness of Appearance Management on
Professional Consciousness and Beauty Education Methods

2005年 12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尹 貞 姬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金 光 淑

외모관리인식이 직업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미용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ffects of Awareness of Appearance Management on
Professional Consciousness and Beauty Education Methods

- 전문대학 미용전공대학생을 중심으로 -

이 論 文 을 藝 術 學 碩 士 學 位 論 文 으 로 提 出 함

2005年 12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尹 貞 姬

尹貞姬의 藝術學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5年 12月

審査委員長_____ ㊟

審査委員_____ ㊟

審査委員_____ ㊟

국문초록

최근 미용에 대한 높은 관심과 미용에 대한 학문적 가치의 인정은 미용의 교육적 방법에 대한 개발이 교육자뿐만 아니라 모든 미용인에게도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용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미용에 대한 직업의식을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전문적 미용인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교육의 실무적·교육방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위의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는 미용 산업 및 직업인의식과 관련된 연구논문 및 단행본, 연구기관 연구보고서 등을 수집하여 논리적 분석을 통해 이론적 기초로 삼고, 대학생의 직업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용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미용전공학생들이 미용을 공부하는 이유가 본인의 선호에 의해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고, 미용 교과과정의 개선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미용사의 직업의식은 보람찬 직업이고, 평생직업으로 전망이 밝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나 미용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고, 특히 경제적 보상에 대한 평가는 매우 낮았다.

셋째, 학생들의 외모관리에 대한 인식을 보면, 외모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는 인식이 낮게 나타난 반면에 후천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아 긍정적 관리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외모의 선천성에 인식이 낮을수록 미용사의 직업의식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직업의식이 높은 결과 직업의 추천의사도 높았다.

다섯째, 미용교육만족도가 높을수록, 외모관리실태가 높을수록, 외모관심도가 높을수록, 외모를 선천적 요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낮을수록 미용직업에 대한 의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대학의 미용교육과 관련한 제언을 하였다.

첫째, 학생들의 긍정적 전공선택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공을 세분화시켜 전문성을 함양하여 미용교육을 내실을 기해야 하는 교과과정의 검토를 거친 후 시대적 흐름과 국제적 감각에 맞는 교과목을 보충하여야 한다.

둘째, 미용관련 분야의 진로의 다양화 및 전문화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기초, 심화, 연구, 분석의 단계별로 구성하고, 학생의 수준에 따른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다양화하는 수준별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학생들의 직업의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외모관리에 대한 인식과 실태가 중요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외모관리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자기외모에 대한 관심과 개선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자기계발과정으로 내·외적인 인성교육을 위해 서비스 예절, 미용 심리학, 미용미학, 이미지 스타일링 등과 같은 교과목을 배정하고, 올바른 전문직업인의 가치관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

넷째, 미용인으로서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문의 전문화, 자기능력의 개발(외국어 및 디자인 등), 미용정보의 습득, 취업의 세계화 등으로 눈길을 돌려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정책 측면에서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틀을 설정해주고, 직업의식의 미용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의 지속적인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 하고 직업의식에 대한 체계적인 교수지도 방법이나 교과 과정을 편성 하므로써 졸업 후 낮은 현장 적응력으로 나타나는 이직률을 개선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방법 및 내용	3
1) 연구방법	3
2) 연구내용	3
3. 선행연구 분석	4
II. 이론적 배경	7
1. 외모에 대한 인식	7
1) 외모 인식의 의의	7
2) 외모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2
2. 외모 관리 행동	16
1) 외모관리행동의 의의	16
2) 외모관리행동의 유형	17
3) 외모인식이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21
3. 직업의식	24
1) 직업의식의 의의	25
2) 대학교육과 직업선택	27

4. 미용교육	28
1) 미용교육의 의의	28
2) 미용교육의 내용	29
3) 미용교육의 발전	31
III. 연구 설계	33
1. 연구대상	33
2. 연구 분석의 틀	34
1) 연구모형	34
2) 연구문제	34
3. 조사도구	35
1) 설문지의 구성	35
2) 외모관리 인식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35
4. 자료수집 및 처리방법	37
IV. 연구결과의 분석	38
1. 기초빈도분석	38
1) 외모관리에 대한 인식	38
2) 미용직업에 대한 인식	41
3) 미용 교육 방법에 대한 인식	43
2. 차이분석	48
1) 외모관리 인식과 직업의식간의 연관성 분석	48
2) 외모관리 실태와 직업의식간의 연관성 분석	51
3) 미용 교육방법 인식과 직업의식간의 연관성 분석	52

3. 회귀분석	57
4. 연구결과의 요약	58
 V. 결론	 62
 참고문헌	 66
설문지	70
ABSTRACT	78

표 목 차

〈표2-1〉전문대학 미용 면허 취득을 위한 교과목	30
〈표2-2〉 4년제 대학 미용학과 교과과정	30
〈표2-3〉 우리나라 미용교육 개설현황(2004)	32
〈표3-1〉 연구대상의 특성	33
〈표3-2〉 조사도구	34
〈표3-3〉 외모관리인식 하위영역별 신뢰도 분석결과	36
〈표4-1〉 외모 관리에 대한 인식	38
〈표4-2〉 외모관리 실태	39
〈표4-3〉 전문 관리실 이용 경험	40
〈표4-4〉 외모관리 만족도	41
〈표4-5〉 졸업 후 희망진로	41
〈표4-6〉 미용직업 인식	42
〈표4-7〉 미용사의 요구 자질	43
〈표4-8〉 연구대상의 전공 특성	44
〈표4-9〉 미용공부 동기	45
〈표4-10〉 미용교육 인식	46
〈표4-11〉 미용교육 과정의 인식	47
〈표4-12〉 신체관리 인식에 따른 직업의식 차이검정	48
〈표4-13〉 선천적 인식요인과 진로에 대한 의견 교차분석	49
〈표4-14〉 외모관심도와 희망진로의 교차분석	50
〈표4-15〉 외모관리 실태에 따른 직업의식 차이검정(ANOVA)	51
〈표4-16〉 미용전공 만족도에 따른 직업의식 차이분석	52

〈표4-17〉 교과과정 만족도에 따른 직업의식 차이분석	53
〈표4-18〉 교수지도 만족도에 따른 직업의식 차이분석	54
〈표4-19〉 주위반응에 따른 직업의식 차이분석	55
〈표4-20〉 미용공부동기와 희망직업 분야 교차분석	56
〈표4-21〉 미용 직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회귀분석	57

그림목차

[그림3-1] 연구모형	34
--------------------	----

I. 서 론

1. 연구 목적

오늘날 생활의 여유는 자아의식의 발달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외적인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기대와 욕구를 강하게 요구하게끔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자신의 외모나 몸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추세를 비추어 보면, 이상적 신체형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해 결정되며, 개인의 신체를 보는 방법이나 신체에 대한 만족도 또한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기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은 사회적 기준(social standard)을 내면화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평가하고 이상적인 신체모습과 자신과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신체관리 행동을 통해 자신을 변화하고 향상시키도록 동기화된다.¹⁾

타고난 외모를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에서 기인한 외모를 가꾸려는 노력은 여러 가지의 외모관리행동을 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 외모관리에 따른 이러한 현상은 미에 대한 높은 관심과 미용에 대한 학문적 가치를 인정하게 되면서, 미용의 교육적 방법에 대한 개발이 교육자뿐만 아니라 모든 미용인에게도 큰 관심사가 되었다. 그래서 미용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를 대응하기 위한 미용학에 대한 관심은 해를 거듭할 수록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1) Kaiser, S.(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NY: Macmillan, 김은주(2001),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미용학은 이론적 지식 축적이나 기능습득 면에서 내용적으로 광범위하고 긴 숙련기간을 거쳐야 하는 인간신체를 아름답게 꾸미는 예술 분야이다. 그러므로 학문과 기술을 겸비한 전문인을 양성해야 하는 대학의 미용교육은 실리적이고 직업과 직결된 미용교육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전문교육으로서의 가치 재인식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또한 고객을 상대해야하는 3차 서비스 산업인 미용산업이 전문 직종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교육과 교육의 주체인 미용학과 학생들의 올바른 직업의식이 설정 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대학은 해마다 많은 전문 인력을 배출하였으며 시대에 맞는 교육적 방법을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용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학문으로 보다는 기능인을 배출한다는 사회적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그 학문적 가치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교육방법 또한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있어 겪는 교육적 혼란으로 인하여 정체성과 직업의식 발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 더욱이 교육기관의 양적인 팽창과는 대조적으로 미용산업계는 고질적인 인력난과 함께 학생들의 직업의식의 결여됨을 지적하고 대학에서의 바람직한 직업의식의 지도를 요구하고 있다.

Kant는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3가지의 선택 즉, 직업의 선택, 배우자의 선택, 가치관의 선택을 통해 보람된 삶을 산다고 하여 직업선택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또, 인간은 일생의 1/3이라는 긴 시간을 일을 하면서 살게 되므로 직업의 결정과 보람찬 직업 활동은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의 개인적 측면과 함께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국가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미용학과는 직업과 직결된 분야로서 미용과 학생들의 전문적 직업의식이 향후 미용산업의 발전과 인적 경쟁력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다. 이처럼 전문직업과 그 직업의식이 의미하는바가 매우 크지만 우리사회의 인문중심, 기능경시풍조에 기인하여 미용직업 교육은 최근 들어서야 정립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올바른 전문인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 현재 미용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자기 외모관리 실태와 미용교육이 직업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미용설문조사의 편익과 연구의 지역적 한계로 서울, 경기지역의 전문대학 미용학과 학생 182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외모관리 인식이 직업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전문적 미용인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교육의 실무적·교육방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내용

1) 연구방법

미용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 외모관리와 미용교육이 직업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교육방법에 대한 분석을 하는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는 신체만족도에 따른 외모관리, 미용산업 및 직업의식과 관련된 연구논문 및 단행본, 연구기관 연구보고서 등을 수집하여 논리적 분석을 통해 이론적 기초로 삼고, 이론적 연구에 기초하여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실증연구는 미용학과 대학생의 외모관리와 직업의식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2) 연구내용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서론 부분인 제 1장에서는 연구 배경,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제 2장에서는 외모 인식, 직업의식, 미용관련학과 대학교육을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제 3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모형을 세우고, 관련 변수들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였으며 선행 연구를 토대로 가설을 설정한다. 제 4장에서는 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 절차를 기술하고 수집된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한다. 그리고 마지막 제 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시사점, 한계 및 향후의 연구 방향 등을 제시한다.

3. 선행연구 분석

미용학과 학생이나 외모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여성들의 신체이미지에 따른 신체관리행동에 관한 김해진(2003)의 연구²⁾는 신체이미지 차이가 클수록 신체존중감은 낮게 나타났고, 신체존중감이 낮을수록 신체관리행동 경험과 의도는 높게 나타났고, 신체통제감은 성형의도만을 조절한다고 보고하였다. 전문대학 미용관련학과 학생들의 신체 만족도와 외모 관심도에 대한 이애숙(2003)의 조사연구³⁾는 외모관심도의 일반적인 경향이 외모에 대한 관심도는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는 불

2) 김해진(2003), “신체이미지에 따른 신체관리행동”, 아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2-35.

3) 이애숙(2003), “전문대학 미용관련학과 학생들의 신체 만족도와 외모 관심도에 대한 조사연구”, 중앙대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5.

만스럽게 생각하고 헤어전공자가 메이크업 전공자 및 피부관리 전공자 보다 외모관심도가 높았으며, 신체적인 만족수준이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수준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김은주(2001)의 연구⁴⁾는 첫째, 학교 특성, 전공, 학년에 따른 외모관심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여자대학에 재학 중이며 예체능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외모에 관심이 많고 신체중요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외모에 관심이 많을수록 이상적인 외모를 위하여 신체 각 부위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고, 셋째,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고 신체중요도가 높을수록 외모관리행동의 경험이 많으며 예체능을 전공하며 4학년인 여자대학생이 외모관리행동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미용학과 교육과 관련한 선행연구로 먼저 방선희(2005)⁵⁾는 미용학과 대학생의 의식구조에 대한 연구에서 학생들의 미용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늦게 형성되나 관련학과 진학은 본인의 의지에 결정되어 학과에 대한 만족도와 관심도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면서 교육이 졸업후 미용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론에 대한 지식과 실제 현장교육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안영희(2004)⁶⁾는 4년제 대학 미용학과 교과과정이 기초전공, 전공심화, 전공응용 및 임상과정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고, 전문연구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실기능력 증가를 위한 현장실습 강화, 인턴제 도입, 맞춤형 교육 등의 교육방법 개발이 필요하

4) 김은주(2001),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55-65.

5) 방선희(2005), “미용학과 대학생의 의식구조” 한남대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0.

6) 안영희(2004), “미용관련 4년제 대학 교육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5-37.

다고 주장하였다.

미용관련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의식과 직업관에 관한 이수진(2004)의 연구⁷⁾는 미용 산업분야가 미용 교육기관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졸업생들의 높은 중도 탈락률 낮은 현장 적응력으로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면서 미용도 이제 학문의 한 분야로서 미용 산업분야도 이를 인식하여 현실성 있는 임금제, 승진제도의 개선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경영 시스템을 도입 전개하여 미용 산업에 대한 편견이 불식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보면 대부분이 대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체에 관한 이미지를 분석하거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관과 진로의식을 검증한 것이 대부분이다. 대학생의 의식에 관한 연구도 대학교육과 관련한 진로에 한정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용전공학생들의 전문 직업 의식을 그들의 외모관리인식과 교육만족도에 기초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미용교육의 발전과 미용산업에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7) 이수진(2004), “미용관련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의식과 직업관”, 중앙대 의약 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41-42.

II. 이론적 배경

1. 외모에 대한 인식

외모는 현대인에게 있어 자신을 인식시킬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수단이다. 따라서 직업인으로서의 미용인도 외모에 대한 인식에 따라 직업의식에 차이가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이에 외모에 대한 인식을 그 의의와 영향요인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외모 인식의 의의

(1) 신체이미지

인간의 자아는 신체적 자아, 사회적 자아, 정신적 자아로 살펴 볼 수 있는데, 이중 신체적 자아의 지각을 신체 이미지라고 부른다. 신체 이미지는 물질적 자아의 한 측면으로써 자아개념의 근본적인 핵심일 뿐 아니라 성숙한 후에도 자아개념의 평가적 구성요소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육체적 외모와 신체적 경험의 주관적인 묘사로 형성되고, 환경으로부터의 새로운 자극에 대하여 반응함으로써 끊임없이 변화되며, 신체에 대한 개인의 지각, 태도, 평가, 감정 및 반응을 포함하는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신체 이미지는 크게 신체의 지각적인 면을 다루는 지각적인 신체 이미지와 신체의 태도적인 면을 다루는 태도적인 신체 이미지라는 비교적 독립적인 2개의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⁸⁾

8) Ketton, W. P., Cash, T.

지각적인 신체 이미지는 개인이 자신의 신체크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또는 왜곡하여 지각하는가에 대한 것으로 태도적인 신체 이미지, 자기 우울감, 섭식 장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진다.

태도적인 신체 이미지란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갖고 있는 느낌, 평가, 행위 등을 말하며, 자아 존중감, 자아개념 및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진다. 태도적인 신체 이미지에 대한 측정도구들은 대부분 특별한 신체부분이나 전체적인 외모에 대한 느낌 또는 만족에 초점을 두고 있다.

Cash 등(1994)은 감정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인지적, 행위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태도적인 신체 이미지에 대한 다차원적인 측정도구인 MBSRQ(Multi-dimensional Body- Self Relations Questionnaire)를 개발하였는데, 이것은 신체적인 외모 뿐 아니라 체중 조절, 건강에 대한 관심, 외모 변형 등의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⁹⁾

개인에게 있어 지각의 대상으로서 신체 이미지와 태도는 개인의 정신상태의 변수들에 따라 변화한다. 즉, 여러 다양한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사건과 자극들, 몸무게나 신체 지수와 관련된 단서들, 또는 어떤 신체적 특성을 가진 사람이 주위에 있고 또 그에 따라 ‘사회적 비교가 일어나는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신체 이미지를 변동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체 이미지의 특

F., & Brown, T. A (1990). Body image or body images iimages?comparative, multidimensional assessment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2), pp. 213-320.

9) Cash, Y. F. & Pruzinsky, T(1990). *Body Images: Development, Deviance, and Change*. NY: Guilford Press., 조선명(2000).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가 의복추구혜택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2-14

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⁰⁾

첫째, 신체 이미지, 신체 변화 또한 다차원적이라는 것이다. 감정적인 신체 변화와 자기 수용적이고 인지적, 행동적인 측면의 신체 이미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이러한 것들이 복합되어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둘째, 신체 이미지는 사회적으로 결정되는데 우리기 속한 사회에는 신체적 매력성에 대한 사회적 기준은 분명히 있고, 매력의 문화적 정의를 향한 사회적 영향력은 확실하게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작용하며 여성이 좀 더 신체적 느낌 및 변화에 민감하다.

셋째, 신체 이미지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는 신체를 꾸며주는 의복이나 보석, 화장, 향수 등의 자신의 미적인 관리 행동에 따라 우리의 신체 이미지 감정을 향상시킬 수 있다.

넷째, 신체 이미지는 행동에 영향을 주는데, 이는 불만족스러운 신체 부분이나 체형을 가리고 보충하려는 노력을 동기화 시키고, 나아가 사람들과의 상호관계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자기 확신과 기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2) 외모인식

신체 이미지는 자기 개념형성과 표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개인이 세상으로부터 다양한 경험을 겪는 동안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신체에 대한 응축된 개념으로써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인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신체의 객관적인 모습보다는 주관적으로 자기신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신체

10) 김은주, 전계논문, pp. 5-6.

이미지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한 생각, 외모 평가의 기준이 변하면 신체 이미지도 변하게 된다.

역사를 통해 신체적 아름다움의 이상은 특정 시대의 미적 기준과 일치하면서 변화해왔고, 개인은 그러한 사회적 기준에 부합되도록 자신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¹¹⁾ 사회 속에는 사회적 신체가 존재하고 우리는 사회의 이상적 신체라는 형태 속에 내면화된 정신적인 태도와 의식을 가지며, 이에 형성된 태도와 의식은 행동을 일으키는 잠재적인 힘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미의 기준, 즉 미의 이상형은 보편적이고 즉각적으로 작용하는 매스미디어에 의해 강력하게 전달되고 있다. 즉 우리는 우리가 항상 접하고 있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외모에 대한 사회적 이상을 지각하며 자신의 외모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다.

여기서 외모에 대한 인식은 객관적인 수치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인지되는 경향이 많으므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없는 상황 하에서 사람들은 타인들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평가를 형성한다는 사회적 비교이론(social comparison theory)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이론은 또한 외모에 대한 인식, 자아존중감 및 외모관리 행동을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Lennon 등(1994)은 사회비교이론을 기초로 하여 신체미학모델을 발전시켰는데,¹²⁾ 이 모델에 의하면 어떤 문화에서 우선 시 되는 이상적인 외모는 사람들이 그들의 외모를 창조하고, 자신과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미적

11) Fallon, A. E. & Rozin, P.(1985). Sex Differences Inperceptions of Body Shap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4, pp. 102-105, 김은주, 전계논문, p. 6

12) Lennon, S. J., Rudd. N. A. Sloan, B. & Kim, J. S. (1999). Attitudes toward gender roles, self-esteem, and body image: Application of a mod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7(4), pp. 191-202., 조선명, 전계논문, p. 11

기준으로서 내면화된다. 즉 사회비교에 의하여 자신의 외모평가가 이루어지고 이에 이상적 기준에 접근하기 위하여 의복이나 화장과 같은 외모관리 행동은 동기화되는 것이다. 즉, 사회비교를 통해 자신의 외모를 더욱 의식하게 되며 이는 자신의 신체적 외모를 관리하게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이끌어냄을 알 수 있다.

외모가 매력적인 여성이 더욱 여성적인 것으로 지각되었고 매력이 없는 여성일수록 남성적인 것으로 지각될 수 있다. 허약해 보이는 바디 라인이 여성적인 것으로 지각되어 날씬함과 여성스러움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섭식 행동(eating behavior)과 여성스러움에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신의 외모에 비판적이며 특히 체중에 더욱 집중한 다. 또한 마른 신체는 아름다움, 건강, 바람직 한 것, 성숙한 것의 상징으로 간주되어 있어서 현대 여성들의 가장 중요한 조건중의 하나라고 인식되고 있다.

즉 외모에 대한 인식은 실제적 실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현실의 왜곡일 수도 있다. 이러한 외모에 대한 인식은 신체가 사이즈 면에서 변하거나 신체의 사이즈나 모양에 비정상적으로 관심을 갖거나 걱정할 때 왜곡될 수 있는 것이다.

과거의 외모인식 왜곡의 문제는 섭식 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나 비만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정상 체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외모인식의 왜곡이 나타난다. 마른 체형의 여성을 정상적으로 인식하는 사회풍토로 인해 정상체중의 여성들이 스스로를 과체중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의식구조에 대한 연구를 보면 중년층과 젊은 여성층 모두 슬림지향성이지만, 젊은 여성층이 더 슬림지향성이 강하다

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¹³⁾ 매우 많은 여대생들이 좀 더 날씬해지기를 원하고 섭취하는 음식의 양을 제한한 경험이 있다는 연구 결과에서처럼 이러한 이상적 미의 추구는 체중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건강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¹⁴⁾ 이로 인해 비만한 사람뿐만 아니라 비만하지 않지만 자신의 체형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다이어트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몸매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증가되고 있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대체적으로 객관적인 비만 수준보다 자신을 더 과체중에 가깝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 자신의 실제 모습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과는 별개로 미에 대한 이상형을 규정하고 이러한 미의 기준과 나 자신의 모습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주관적 외모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의 연구를 보면 외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식생활에 영향을 주었으며 대중매체 역시 서양식 이목구비뿐만 아니라 날씬한 몸매를 가장 이상적인 미적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한국에서도 서구화의 영향으로 날씬하고 서구적인 외모를 이상적 체형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외모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체는 현대인에게 있어 자신을 인식시킬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수단인 동시에 현출한 속성이다. 그러므로 개인은 신체를 통해 자신이 어떤 종류

13) 박수미(1993). “우리나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의식구조-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1(1), pp. 163-179.

14) 정근백 등(1995), “인천시내 중, 고등학생들의 다이어트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분석”, 「가정의학회지」 16권 4호, pp. 254-260

15) 김용주(1999), “여대생의 신체이미지에 따른 의복추구태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7.

의 사회적 존재인지를 표현하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존재를 평가받는다. 이런 이유로, 개인의 신체에 대한 지각과 평가는 중요하다. 그 중 신체이미지는 자신의 신체경험을 통해 형성하게 되는 외모에 관한 정신적 표상으로, 자신이 속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되는 것이다. 즉 신체에 대한 감각적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주관적이 심상이기에, 신체의 객관적인 모습보다는 주관적인 지각이 중요하다. 가령 사회 문화적 기준에 근접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도,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개인의 신체이미지가 부정적이면, 그에 따른 행동, 사고 경향은 크게 달라지며, 또한 신체이미지는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신체에 대한 생각, 신념, 평가의 기준이 변하면 신체이미지도 변하게 된다.

신체이미지는 크게 신체의 기능 차원(근력, 내장기관들의 적절한 적용을 토대로 하는 건강 등에 대한 지각)과 외양 차원(신체의 외적 특성, 크기, 형태 등에 대한 지각)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기능과 외양에 대한 지각에는 특성에 대한 인지와 이에 대한 평가적 감정이 포함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신체에 대한 인식 특성에 성차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평가는 주로 외양차원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남성의 경우는 기능차원에 대한 평가가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성은 주로 자신의 외모특징에 대한 지각을 토대로 자신의 신체존중감을 경험하는 반면에 남성은 자신의 신체적 능력에 대한 지각이 신체존중감의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여성에게는 외모의 아름다움을 남성에게는 주로 근력의 기능을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한편, 신체의 기능이나 외양에 대한 평가 즉, 자신의 신체기능이나 외양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가 아니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가에 대해 많은 요

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이런 요인들은 그것이 종교의 이름으로든 이념의 형태로든 관계없이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개인간 또는 세대간 정보소통을 통해 전달되는 가치관과 규범일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가치관과 규범의 전달은 대부분 TV, 영화,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의 매스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런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들이 개인의 신체지각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매체의 영향력이 중요한 이유는 매체들이 전달하는 신체에 관한 메시지들은 수용자에게 ‘아름다운’ 또는 ‘좋은’ 신체란 무엇인가에 대한 평가의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은 현대의 특히 여성들에게 대중매체들이 전달하는 긍정적 외모의 특성이 하나의 이상형(ideal form)으로 내면화되어 자신의 신체를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만든다고 본다.¹⁶⁾

따라서 외모에 대한 인식은 외적 정보의 영향을 받아 형성하게 되는 이상적인 이미지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지각을 통해 형성하게 되는 실제 이미지를 비교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개념화는 자기개념을 단순히 자신에 대한 현실적 지각이라는 단일구성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자기(real-self)와 이상적 자기(ideal-self)의 두 성분으로 구성된 중다구성체로 보는 관점과 일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신체 특성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전반적 태도는 자신의 신체특성에 대한 지각을 이상적인 신체특성과 비교한 결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문화적 압력이 마른 신체(thin or slim)를 여성의 이상적인 신체로 강조하고, 여성의 성역할에서 외모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외모가 사회적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¹⁷⁾ 현대의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사회 문화적

16) 김은실(2001),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서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p. 6.

정보들은 마른 신체를 여성의 이상적인 신체로서 아름답고, 건강하고, 바람직하며, 성숙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를 내면화함으로써 매우 마른 신체를 이상화된(idealized) 신체로 지각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실제 신체이미지와 불일치(discrepancy)를 경험케 한다.¹⁸⁾ 즉 이상적인 자기는 “매우 날씬한 자기” 이나 실제 자기는 “그와는 다른 상태” 라면 이들 두 자기이미지간의 차이에 따른 불일치(discrepancy)를 경험하며, 이는 자신의 신체기능과 모습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인 신체존중감(body esteem)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무조건적으로 불일치를 크게 지각한다고 해서 신체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즉 이상적 신체이미지와 실제 신체이미지의 차이가 크더라도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이 낮은 경우에는 신체에 대한 인식은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자신을 더 매력적이라고 지각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더 나은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개인이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는 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¹⁹⁾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는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날씬한 신체가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관심이 많을수록 자기 신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일 것이다. 특히 요즘처럼

17) Stice, E., Shaw, H. E., & Nemeroff, C. (1998). Dual pathway model of bulimia nervosa: Longitudinal support for dietary restraint and affect-regulation mechanism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7, pp. 129-149, 김혜진, 전개논문, p. 5-6.

18) Lennon, S. J., Rudd, N. A. Sloan, B. & Kim, J. S. (1999). Attitudes toward gender roles, self-esteem, and body image: Application of a mod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7(4), pp. 191-202, 상계논문, p. 6

19) Cash, Y. F. & Pruzinsky, T.(1990). *Body Images: Development, Deviance, and Change*. NY: Guilford Press. 김은주, 전개논문, p. 7

여성의 신체사이즈가 점차 줄어들면서 마른 신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늘고 있고, 해를 거듭할수록 저칼로리 식품, 생식과 같은 체중감소용 다이어트 식품판매량의 증가나, 성형외과, 헬스, 댄스 클럽과 같은 신체관리 활동의 증가를 볼 때, 여성들이 경험하는 마른 외모에 대한 관심도는 중요한 개인차 특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외모 관리 행동

오늘날 여성의 외모는 만들어지고 관리될 수 있다는 사회적 관념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외모의 관리가능성에 대한 신념의 정도에 따라 미용학도의 직업의식에는 차이가 있으리라고 본다. 이에 본 절에서는 외모관리행동의 의의와 유형을 검토해 본다.

1) 외모관리행동의 의의

미에는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이 있는데, 내적인 면에 비해 외적인 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외모가 더 나아지도록 노력한다. 외적인 외모는 자기 자신이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외모를 가꾸기 위한 개인의 의지는 옷이나 헤어스타일, 화장품에 신경을 쓰는 것에서부터 체중조절, 성형수술 등의 외모관리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충분한 동기가 된다.

아름다운 외모의 기준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변화되어 왔고, 이제

더 이상 몸은 노동의 도구가 아닌 부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자원으로 바뀌었다. 또한 사람들의 소비문화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확산되면서 대중매체가 발달하고 이에 등장하는 완벽한 외모를 접하면서 외모를 관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오늘날 여성들의 외모가 하나의 자본이 되는 현상은 ‘타고난 미모’라는 과거의 개념과는 달리, 오늘날 여성의 외모는 명백히 만들어지고 관리되는 것이라는 사회적 관념과 그를 뒷받침하는 제도들이 형성되면서 여성들의 외모관리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점차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현상은 신체와 관련된 산업이 급속하게 발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²⁰⁾ 오늘날 여성들의 외모관리 영역으로써 크게 대두되고 있는 성형수술과 다이어트의 사회적 유행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용전공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을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정도에 따라 자신의 신체적 외모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외모를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행해지는 행동으로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피부관리 및 얼굴화장, 운동과 다이어트를 통한 체중조절행동, 그 외 미용성형수술의 유형으로 정의하고, 외모관리행동의 유형에 대해 살펴본다.

2) 외모관리행동의 유형

(1) 피부관리와 얼굴화장

미에 대한 욕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경제적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여대생들의 피부관리와 화장, 헤어스타일 등 미용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

20) 허미영(1997), “여성의 체형관리경험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 1-2.

보다 높다.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은 자신을 관리하고 투자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향은 여대생들에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학업과 직업에 대한 관심이 많고 외모단장에 필요한 옷, 화장품, 헤어스타일과 피부 미용 및 화장을 위하여 미용실을 자주 이용하는 등 왕성한 소비 활동을 한다.

자기표현의 관점에서 볼 때, 화장품의 사용은 대인 관계에서 인상뿐 만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나가는데 영향을 미친다. 화장을 한 외모가 더 매력적이고 더 여성적이며, 더 섹시하게 지각되고 호감도가 높게 평가된다고 보고 되고 있다.²¹⁾ 화장은 여성들에게 더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화장을 했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를 비교해서 지각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도 자신을 더 매력적이라고 느끼고, 이러한 감정이 긍정적인 외모인식으로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또한, 자기 감시(high self-monitoring)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의 인상관리에 더 민감한 편이고, 더 많은 화장품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자기중심적이고 신체에 가치를 많이 두는 사람일수록 미적인 자신의 외모를 위해 화장품의 사용 정도가 더 높고,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외면적인 면에 더 신경을 쓰고 여성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결과가 있다.

신체 외적인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강해지면서 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함께 최근에는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여성에게는 신체의 일부분인 피부의 건강이 다른 신체부위의 건강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며 누구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갖고 싶어 한다. 임혜원(1999)의 여대생의 피부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위에 관한 연구에서 연령과 학년이 높을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외모에 만족도가 높

21) Cox, C. L., & Glick, W. H(1986). Resume evaluations and cosmetics use: When more is not better. *Sex Roles*, 14, pp. 51-58., 김은주, 전계논문, p. 23 재인용.

을수록 피부건강관리 행위수준이 높았으며, 여대가 남녀 공학의 여대생보다 높았으며, 출신고교 소재지가 대도시인 경우가 가장 피부건강관리 행위수준이 높았고, 피부건강관리 행위수준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²²⁾

20대 여성들은 화장을 하는 첫 번째 목적이 자신의 미적 표현을 위해서였으며, 외제 화장품에 대한 선호정도, 피부에 대한 관심, 전문적으로 피부관리를 받고자 하는 욕구 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부관리의 경우는 희망하는 정도에 비해서 실제 경험은 적었는데, 이는 경제적인 비용부담의 문제로 인하여 학생들의 실제 경험이 적다고 설명할 수 있다.

(2) 체중조절행동

90년대 초반부터 조금씩 그 유행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다이어트는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이어트의 사전적 의미와는 상관없이 ‘다이어트한다’는 것은 단지 살을 빼고 있다는 의미와 동일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원래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식이요법의 의미를 가지고 있던 다이어트는 여성들이 행하는 외모관리의 영역으로서 자리잡은 것이다.

여대생들은 대체적으로 객관적인 비만수준보다 자신을 더 과체중에 가깝게 인식하고 있고, 과반수 이상이 실제 체중감량을 위해 무리한 다이어트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²³⁾ 시도했던 체중조절방법으로는 식사조절과 운동이 가장 많았고, 이외에 자신의 체중감량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임혜원(1999). “일부 여대생의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58-59.

23) 성영신(1997). “소비자 광고 속의 신체이미지: 아름다움의 담론”. 「사회비평」, 17, pp. 31-62

이처럼 체중조절은 최근에 들어 사회문제로 다루어질 만큼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신체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사회적인 압력을 받고 있고, 신체는 여성에게 있어서 하나의 개인적 차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건강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외모관리나 신체상의 이유로 체중조절을 시도하는 여대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의류산업도 이러한 체중조절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류산업은 우선적으로 의복 제작시 표준신체에 맞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표준이 되는 여성이나 남성들만이 의복을 잘 선택할 수 있다. 이처럼 그 사회의 이상적인 신체상이 의류치수체계에 반영된 의복이 자신과 맞지 않을 때, 소비자는 의복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족을 의복보다는 자신의 신체에 그 원인을 돌리며, 이는 체중조절을 실시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행하고 있는 의복을 착용하기 위해서는 체중조절을 통해서라도 표준형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특히 미를 전달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담당하는 미용전공인들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위해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외모 관리에 반응하였다.

일반 여성들도 체형관리의 대표적인 유행이었던 헬스나 에어로빅, 미용 체조 등은 단시간에 살을 빼기 어렵고, 정해진 시간에 참여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여성의 스포츠 참여율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비해 단기간에 힘들이지 않고 살을 뺄 수 있는 체형관리가 일반화되고 있다. 이러한 체형관리실의 유행은 서울 지역에 있는 체형관리실, 비만관리실의 숫자만 보아도 알 수 있으며, 비만, 피부 관리, 풋케어(foot care), 네일케어(nail care)에 이르기까지 외모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미용성형 수술

생활수준의 향상과 미에 대한 관념이 변화됨에 따라 외모에 대한 관심은 미용성형 뿐만 아니라 외모향상을 위한 미용성형을 원하는 여성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성형수술의 기술발달과 함께 일반 대중의 성형수술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성형수술의 유행은 남자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미용성형수술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업상 연예인들이나 하는 사치스러운 것으로 여겼으나 최근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들의 가치관의 변화는 미용성형수술에 대해서도 점차 긍정적인 태도로의 변화를 가져 왔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외양을 체중조절이나 화장을 해도 자기 만족도가 낮은 경우에 그 대안으로 성형수술을 택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눈, 코, 입 등의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최근에는 얼굴 윤곽이나 신체부위의 시술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김은주의 연구논문 통계자료에 의하면 가장 성형받고 싶은 부위 1위가 얼굴로(53%) 이마, 광대뼈, 턱 윤곽 교정 등으로 작고 가름한 얼굴을 위한 얼굴 윤곽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음으로 지방 흡입술(27%), 가슴 관련 수술(13%) 순 이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과거에 이상적 미인으로 여겨졌던 이목구비만 예쁜 미인보다는 작은 얼굴에 균형 잡힌 몸매를 중요시하는 지금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

3) 외모인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외모에 대한 인식은 외모를 포함한 신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체관리란 단순한 생명유지를 위한 섭식이나 운동이 아니

라 ‘신체의 기능이나 외양을 변화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의도적 소비행위’를 뜻하는 것이다. 즉, 신체의 기능이나 외양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가진 적극적 소비행위를 말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몸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영역은 음식과 운동이고, 몸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영역은 화장과 의복이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널리 볼 수 있는 건강식품의 소비와 다이어트프로그램, 그리고 에어로빅이나 헬스클럽과 같은 운동프로그램들의 소비 증가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일반적으로 수긍할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더욱 적극적인 몸 통제를 간과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얼굴이나 체형을 직접 변화시키게 되는 성형이나 지방흡입술은 이미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인간의 몸을 통제하는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신체관리 관련 상품의 예를 들면, 건강, 다이어트식품과 프로그램, 에어로빅, 헬스클럽과 같은 프로그램들, 단학, 활원, 명상 요가와 같은 신체수련 프로그램들, 화장품, 기능성 의류, 성형 등의 광고들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자명하다. “당신의 신체는 이상적이지 않다. 이 상품으로 신체를 이상적인 것에 가깝게 신체의 기능 또는 외양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하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광고의 표적이 된다. 또는 불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메시지에 노출하면서 다시금 자신의 신체를 살펴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부정적 태도나 불만족이 야기하는 긴장은 소비행위를 위한 동기적 기능을 하게 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²⁴⁾ 광고모델의 신체이

24) 박은아(2000), “광고모델과 소비자의 신체이미지 차이에 따른 광고효과”,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10-112.

미지와 자신의 신체이미지의 차이를 크게 지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신체존중감이 낮아지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름다움’ 관련 상품들의 구매의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이는 소비자가 자신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자기 향상(self-improvement)동기에 의해 구매욕구나 제품 선택 행동이 일어남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신체와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TV 프로그램이나 잡지기사에 노출하는 정도가 높은 여대생들은 그렇지 않은 여대생에 비해 신체변형과 관련된 신념과 태도, 행동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⁵⁾ 이런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신체에 관련된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는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행동은 단순하지 않아서, 외모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신체관리가 더 많이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다. 낮은 외모인식으로 인해 신체의 기능이나 외모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발생한다 해도 실제 행동이 나타나려면 자신이 선택한 소비행위가 개인이 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하는 확신이나 기대가 없으면 행동수행을 개시하지 않을 것이다.²⁶⁾

외모를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바꿀 수 있다고 믿으면 심리적, 신체적 만족감을 경험한다. 특히 요즘같이 이상적인 기준을 성취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외모를 통제 할 수 있다는 신념은 외모관리행동에 중요한 변인이 된다. 이러한 통제신념이 여대생에게 화장, 다이어트, 운동과 같은 외모관리 행동과 상관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고,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한 여대생과 청소년 집단에서는 집단에 관계없이 운동이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볼 때, 운동은 개인의 직접적이며, 지속적인 노력을 수반

25) 오상화·나은영(2002), “대중매체 소비가 여대생의 신체변형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 매개 과정”, 「한국심리학회지」 3(2), pp. 141-160.

26) 오상화·나은영(2002), 전제논문, pp. 141-160.

하는 행동인 동시에 노력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에 따라 신체가 바뀔 수 있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활동보다 운동을 선호할 것이다. 반면에 신체는 유전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직접적인 노력보다는 외부에 의존하는 가령 전문가들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거나, 신체변형을 가능케 해준다고 지각하는 제 품이나 활동을 선호할 것이다.

이상 외모에 대한 인식과 외모관리의 관계를 보면, 외모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인 추세를 반영하는 동시에 이를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신념으로 외모관리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더욱이 고객을 상대로 하는 대부분의 서비스 직종의 경우 외모가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미용과 관련한 직업을 희망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전문 기술의 습득뿐만 아니라 이러한 외모에 대한 자기 인식과 통제가능성에 대한 신념이 이들의 향후 직업의식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판단된다.

3. 직업의식

직업은 사회와 개인, 전체와 개체를 연결하는 접점이다. 따라서 자기의 직업에 대한 인식에 따라 직업인의 삶의 태도는 변화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미용인의 직업의식을 분석하는 이론적 기초로 직업의식에 관한 이론을 살펴본다.

1) 직업의식의 의의

(1) 직업의 개념

직업²⁷⁾은 성인 등의 활동으로서 경제적으로 보상되는 활동을 뜻한다. 직업의 사전적 내용은 관직상의 일, 일상으로 종사하는 업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 가업, 생업 자기능력에 따라 어느 목적을 위해 전심하는 일이라고 되어있다.²⁸⁾ 직업이란 생계의 유지, 개성의 발휘 및 자아의 실현, 사회 역할의 분담을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행하는 노동 또는 일로 사회생활의 기초가 사회생활 전체와 개인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때 직업이란 이들을 연결하는 통로가 된다. 즉 사회와 개인, 전체와 개체의 연결점을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로 Occupation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직업을 의미한다. 그리고 Job는 직업의 최소단위를 지칭하며, Career는 모든 직업을 다 포괄하는 가장 넓은 의미로 쓰인다.²⁹⁾ 직업은 인생에 있어 생명적 의미, 경제적 의미, 사회적 의미, 종교적 의미, 정신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직업의 용어를 요약하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발휘하여, 그 역할 수행에 따른 보수로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계속적인 행위 양식이며 또한 사회적 역할의 분담 및 자아실현을 목표로 하는 인생에 있어 생명적 의미, 사회적 의미, 종교적

27) 직업을 한자로는 사회적 지위나 위상을 나타내는 직종의 ‘직(職)’과 위상을 뜻하는 업종의 ‘업(業)’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이다. 직업을 영어로 Vocation 혹은 calling이라고 하는데 이 어원은 라틴어 vocare에서 유래한다. vocare란 부른다는 뜻이다. 막스 베버는 Vocation을 하나님한테서 소명(Calling)을 받은 직업이라고 정의했다.

28) 김충기(1995), 「미래를 위한 진로교육」, 서울: 양서원, p.19.

29) 길형석(1999), “진로교육의 실제 중등학교의 진로교육”, 「교육마당21」, 9월호, p.20.

의미, 정신적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

(2) 직업의식의 정의 및 유형

직업의식은 하나의 직업에 대한 인식 또는 가치를 보는 관점 혹은 한 개인 또는 사회가 일 또는 지위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가치인식이다. 직업의식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직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일정한 관념, 또는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혹은 종사하려는 직업에 대하여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는가를 말한다고 한다. 또한 직업경험에서 생겨나는 점을 강조하여 직무에 종사하고 직업생활을 영위하는데서 생겨나는 갖가지 사태에 대하여 개인이 갖게 되는 가치의식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³⁰⁾

직업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관념 및 태도, 일에 대한 가치뿐만 아니라 가족, 작업환경 그리고 사회와 매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특정 직업이 아닌 일반화된 개념으로 직업에 대한 개인의 관점 또는 견해로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정의하기도 하였다.³¹⁾

따라서 직업의식이란 특정직업이 아닌 보편적인 직업에 대한 가치기준이며 직업에 대한 개인의 관점 또는 태도로 가족, 학교, 직업 환경 등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며 상당기간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직업의식은 직업이 인간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직업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자기 본위의 직업의식, 사회 본위의 직업의식, 일 본위의 직업의식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자기 본위의 직업의식은 직업을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이며 입신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견해이다. 가장 통속적인 직업관으로 생업으로서의 직업적 측면을 강조한 직업의식이다. 둘

30) 정우현·구병림·이무근(1993), 「직업기술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p.40

31) 표은영(1987), “공업고등학교 학생과 직업훈련원생의 직업가치관 및 직업선택태도에 관한 연구”, 경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0.

째, 사회 분위의 직업의식은 봉사와 함께 자신보다 사회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삼는다. 셋째, 일 분위의 직업의식은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보는 견해이다.³²⁾ 우리사회에 가장 필요한 직업의식은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직업의식 가운데 어느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 직업의식 각각의 속성이 적절히 조화된 직업의식일 것이다.

2) 대학교육과 직업선택

대학은 교육과 사회봉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의 전당이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잠재되어 있는 적성과 자질을 개발하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신장하고 인격을 도야하기 위해 연구하고 학습하는 곳이다. 따라서 어느 대학에서 어떠한 전공을 선택하여 수학하느냐는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성공적으로 대학에 진학하여 전공을 선택하고 미래의 직업을 준비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중요한 인생의 과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학과 직업선택을 위한 지혜로운 첫걸음은 학생 자신에 대한 냉정한 관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러한 자기 통찰은 대학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는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대학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이며 학생 자신은 대학교육을 받을 준비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전공이 적성에 부합되는지, 대학 졸업 후 어떠한 진로를 결정할 것인지, 또한 대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여 결정했는지 등의 질문에 대해 냉정히 생각해 보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기초로 졸업 후 뚜렷한 직업의식을 가진 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32) 김충기(1995), 전게서, pp .431-432

4. 미용교육

우리나라의 미용교육이 특히 대학에서 본격화된 것은 그리 길지는 않지만 미용교육의 사회적 필요성과 미용산업은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미용교육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본다.

1) 미용교육의 의의

미용학이란 기능적이고 실제적인 미용에 대한 학문인 동시에 과학적인 지식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말 큰 사전에 의하면 미용은 얼굴이나 머리 등을 곱게 매만짐. 복식 이외의 방법으로 즉, 화장품이나 결발 등으로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화학적 기교를 행하는 수단 이라고 정의하고, Cosmetology Dictionary(1995)에는 미용은 얼굴, 피부, 두발과 손. 발톱의 상태를 개선하여 아름답게 미화시키는 예술인 동시에 과학의 이론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얼굴, 손, 발관리, 메이크업, 헤어, 의상 등 전체의 조화에 의해 이루어진다.³³⁾

그리고 미용교육은 미를 만들어내는 자유로운 창조 활동을 돕고 인성을 지향하므로 개인과 사회 사이에서 미적 창조 과정을 통해 조화있는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으로 인체라는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인간의 욕구가 예술적, 간호학적, 과학적, 의학적, 사회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능력과 표현, 시술하는 능력을 최고도로 높이는 데 있다고도 할 수

33) 이민화(1996). 「향장품과학입문」, 서울: 신광출판사, p .17.

있다.³⁴⁾

따라서 대중의 관심과 욕구가 날로 증대되는 건강과 미에 대한 향상과 미적인 요구는 더욱 더 전문화, 고급화, 차별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미용교육은 현대 의학에 바탕을 둔 미용의 과학적인 연구와 함께 미용기술의 전반적인 면을 습득하여, 현대미와 접목시키는 과학적이고 미적 능력을 갖춘 전문 미용인을 양성해야 한다.³⁵⁾

2) 미용교육의 내용

미용학과 교육 과정은 헤어, 피부, 메이크업을 다루고 있으며 수업 시간은 미용사 면허 취득을 위한 보건복지부 시행안의 필수 이론 172시간 이상과 공중보건법상의 미용에 관한 이론시간(교양, 교직과목포함) 624시간 이상과 실습(현장실습 포함) 672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이론과 실기의 비중이 50:50으로 구성되어 총 1,472 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배정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시행안의 전문대학 미용 면허 취득을 위한 교과목은 <표2-2>이며 4년제 대학 미용학과 교과과정은 <표 2-3>과 같다.

34) 한영숙(1997). “수도권 전문대학 미용관련과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3(1), pp .259-279

35) 이애숙, 전계논문, p. 7.

〈표2-1〉 전문대학 미용 면허 취득을 위한 교과목

과 목	시 수
위생법규, 소독 및 전염병학, 공중보건학, 생리해부학, 피부과학	176시간 이상
미용관련 이론(교양, 교직과목 포함)	624시간 이상
미용관련 분야 실습	672시간 이상

〈표2-2〉 4년제 대학 미용학과 교과과정

전공필수	피부과학, 소독 및 전염병, 해부생리학, 화장품재료학, 미용학개론, 일러스트레이션
전공선택	헤어컷, 헤어디자인, 헤어컬러링, 헤어스타일링, 퍼머넌트, 살롱트리트먼트 피부관리, 에스테틱특수관리, 바디트리트먼트, 에스테틱임상실습 아로마테라피실기, 피부미용기기학, 아트메이크업, 메이크업디자인, 네일아트, 이미지연출, 색채학, 업 스타일, 토탈코디네이션 손, 발관리학, 경락이론 및 실기, 공중보건학, 교육학개론, 현장실습, 미용경영

미용학과 분야별 교육내용을 보면, 헤어의 경우 두발의 종류별 머리 자르기와 머리 모양내기, 소독학, 공중 보건학, 위생 법규, 미용 이론, 피부과학 이론, 신부 화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부미용 관리의 교육 내용은 피부생리학, 인체 전기학, 해부 생리학, 화장품학, 영양학, 소독학 및 전염병학, 한방미용,接客 매너, 위생 법규, 공중보건학, 색채 조명, 얼굴·목 피부 유형별 관리 방법 및 맞사지실기법, 전신 관리 및 맞사지실기법, 손·발톱 관리,

화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국내 미용교육의 발전

한국 여성들이 신 문명에 의한 미용에 눈을 뜨게 된 것은 한일 합방 이후부터이다. 1920년대에 이숙종 여사의 높은 머리와 김활란 선생의 단발머리는 여성들의 머리형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한국의 미용교육은 1928년 경성미용학교의 설립에 그 시초를 두고 있고, 일본인이 설립한 다나카 미용 학교에서 많은 한국인 미용사를 배출하였다. 광복 직후에는 김상진씨가 현대 미용학원을 설립함으로써 시작되었다. 6.25 직후 일본 데루미 미용학교를 졸업한 권정희씨가 정화고등기술학교를 설립하여 잿더미 속의 미용의 맥을 이어나갔다. 그 당시에는 주로 부녀자들이 퍼머 기술을 배웠으며 메이크업과 마사지 교육도 실시되었다.

1961년 미용사 면허제도가 입법화되면서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1991년 영동대학과 동주대학에 미용과가 개설됨으로써 학문적 분야로서 교육과 연구의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미용 산업의 인식변화와 직업 및 고등 교육분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직업군이 생기면서 교육 또한 전문화, 세분화시켜서 다양한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전문직으로 미용직업의 선호도로 인하여 미용교육기관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인·허가를 받은 사설학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직업학교 및 고등학교,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교와 석사과정의 대학원, 평생교육원까지 이어진 교육시스템이 양적으로 팽창하였다.

그 결과 2004년 현재 32개 미용관련 고등학교, 95개 2년제 전문대학, 15

개 4년제 대학교, 176개의 재교육기관(대학원, 평생교육원, 학원)이 개설되었다(<표2-1> 참조).

<표2-3> 우리나라 미용교육 개설현황(2004년 현재)

구분	고등학교	대학 (2년제)	대학교 (4년제)	대학원	평생교육원	학원
개설학교수	32	95	15	18	23	135

미용학과의 인접 학문으로는 미학, 색채학, 상담심리학, 디자인학, 컴퓨터, 미용관련서적, 컴퓨터 등을 포함하여 2002년도 전문대학 미용학과 졸업생 취업률은 95.5%까지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며 헤어 미용실과 피부 관리실, 화장품 회사 등에 진출하고 분장사 등으로도 진출하고 있다.³⁶⁾ 그러나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와 같은 임시직도 취업에 포함한 경우의 대학이 있어 취업률의 정확성에 다소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36) 화장품 연감, 2004.

Ⅲ. 연구 설계

1. 연구대상

전국 대학 미용학과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지만 설문조사의 편의와 연구의 지역적 한계로 수도권지역의 미용학과 3개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표본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성을 보면 남학생인 5.5%, 여학생이 94.5%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19세가 50.0%, 21세 이상은 19.2%, 20세는 17.6%, 18세는 13.2%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구분에서는 1학년이 8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학년은 12.0%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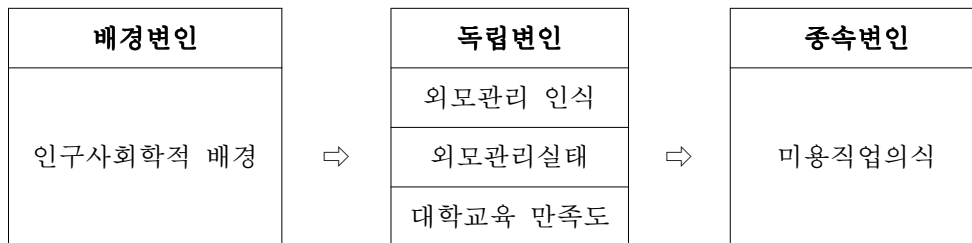
〈표3-1〉 연구대상의 특성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성별	남성	10	5.5
	여성	172	94.5
연령	18세	24	13.2
	19세	91	50.0
	20세	32	17.6
	21세 이상	35	19.2
학년	1학년	160	87.9
	2학년	21	12.0

2. 연구 분석의 틀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배경변인으로 하고 대학생의 외모관리에 대한 인식과 실태, 그리고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미용전공 대학생의 직업인식과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그림3-1] 연구모형

2) 연구문제

위의 연구모형에 기초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문제 1> 미용전공 대학생의 외모관리 인식에 따라 그들의 직업의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미용전공 대학생의 외모관리실태에 따라 그들의 직업의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미용전공 대학생의 교육방법 인식에 따라 그들의 직업의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조사도구

1) 설문지의 구성

위의 연구모형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도구를 구성하였다. 기본적인 신체관리에 대한 인식은 김해진(2003)과 이애숙(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변형하여 사용하였고, 대학교육의 만족도와 직업인식에 관한 부분은 방선희(2005)의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표 3-2〉 조사도구

변인	문항내용	문항수
배경변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5
독립변인	외모관리에 대한 인식	18
	외모관리실태	6
	미용교육방법	9
종속변인	직업의식	10

2) 외모관리 인식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신체관리 인식을 평가하는 설문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신뢰성 검증을 실

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신뢰성이란 비통계적인 오차(random error)와 관련된 개념을 확신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어떤 질문에 대하여 비슷한 답변이 나타나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일관성을 고려하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측정방법을 사용하여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계수의 경우는 신뢰성 분석 개념의 내적 일치성에 관한 것으로 하나의 개념에 대하여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는 척도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 문항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신뢰도를 구하고 이의 평균치를 산출한 것이 계수 값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알파 값이 0.6이상이면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3-3〉 외모관리인식 하위영역별 신뢰도 분석결과

척도	문항수	신뢰도	문항번호
선천성인식	4	.649	1, 2, 3, 4
후천성인식	4	.789	5, 6, 7, 8
외모관심도	6	.796	9, 10, 11, 12, 13, 14
외모열등감	4	.663	15, 16, 17, 18

신체관리 인식문항의 구분별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s α)는 유전적 요인은 0.649, 외모관리요인은 0.789, 외형적요인은 0.796, 열등감요인은 0.663등으로 나타났다. 신체관리 인식문항의 구분별 측정 항목들은 내적일치도가 높아 측정하는 문항들이 안정성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자료수집 및 처리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수도권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200부의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여 수집하였으며, 수집한 설문지중 내용기재가 부실한 18부를 제외한 182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으로 처리하였다.

첫째, 응답자들의 인구 통계적 사항을 고찰하기 위해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신체관리 인식과 대학교육 만족도가 직업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카이검증, T-test, ANOVA,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한 통계패키지는 SPSS version 11.0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의 분석

1. 기초빈도분석

1) 외모관리에 대한 인식

〈표4-1〉 외모관리에 대한 인식

	N	평균	표준편차
선천성인식	182	2.89	0.55
후천성인식	182	3.75	0.69
외모관심도	182	3.43	0.63
외모열등감	182	3.39	0.70

연구대상 학생들의 외모관리에 대한 인식을 보면, 외모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는 인식이 2.89로 낮게 나타난 반면에 후천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인식이 3.75로 나타나 긍정적으로 관리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외모관심도는 3.43, 외모열등감은 3.39로 나타나 다수의 학생들이 외모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어느 정도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2〉 외모관리실태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화장 정도	기초화장	32	17.6
	부분화장(눈썹,입술)	66	36.3
	전체화장	72	39.6
	화장을 안함	12	6.6
화장 시 중요한 부 분	피부화장	72	39.6
	눈화장	75	41.2
	입술화장	5	2.7
	얼굴윤곽수정	3	1.6
	기타	27	14.8
	합계	182	100
경험한 외모관리 (복수응답)	다이어트	68	29.3
	운동	72	31.0
	성형수술	17	7.3
	미용적 얼굴 관리	42	18.1
	체형관리	18	7.8
	기타	15	6.5
	합계	232	100

연구대상 학생들이 현재하고 있는 화장의 수준을 보면, 전체화장을 하고 있다는 학생이 39.6%로 가장 많았고, 부분화장을 하고 있는 학생이 36.3%로 그 뒤를 이었다. 기초화장만을 하고 있는 학생이 17.6%를 차지하였고, 화장을 하지 않는 학생이 6.6%였다.

학생들이 화장 시 중요시 하는 부분을 보면, 눈 화장을 중요시하는 학생이 41.2%로 가장 많았고, 39.6%가 피부화장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피부와 눈에 중점을 두고 화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들이 경험한 외모관리 방법은 운동이 31.0%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다이어트가 29.3%를 차지하였다. 얼굴의 미용관리를 경험한 학생이 18.1%였고, 성형수술을 시행한 학생도 7.3%에 이르렀다. 따라서 학생들의 보편적인 외모관리 방법은 운동과 다이어트 등 체형관리에 초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4-3〉 전문 관리실 이용경험

		빈도	퍼센트
전문 관리실 이용경험	있다	65	35.7
	없다	117	64.3
	합계	182	100
경험종류 (복수응답)	얼굴 관리	59	31.4
	전신 관리	25	13.3
	발관리	24	12.8
	선탠	7	3.7
	눈썹관리	17	9.0
	손톱손질	48	25.5
	기타	8	4.3
	합계	188	100

학생들의 미용 전문관리실 이용경험을 보면, 이용경험이 있는 학생이 35.7%로 이용경험이 없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관리실에서 경험한 외모관리의 종류를 보면, 얼굴관리가 31.4%로 가장 경험이 많았고, 손톱손질을 경험한 학생이 25.5%에 이르렀다. 그리고 전신관리, 발관리의

순서를 보였다.

〈표4-4〉 외모관리만족도

	N	평균	표준편차
외모관리만족도	182	3.18	0.61

경험한 외모관리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5점만점에 3.18로 나타나 보통정도 수준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미용직업에 대한 인식

〈표4-5〉 졸업 후 희망진로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졸업 후 진로 희망분야	대학원 진학	16	8.8
	미용관련 교육자	43	23.6
	미용업 종사	109	59.9
	전공과 관련 없는 직업	4	2.2
	기타	10	5.5
졸업 후 취업 희망분야	헤어 디자이너	71	39.0
	피부 관리사	34	18.7
	메이크업 전문가	56	30.8
	화장품 관련회사	12	6.6
	전공과 다른 분야	9	4.9
	합계	182	100

연구대상 학생들의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를 보면, 미용업 실무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59.9%로 가장 많았고, 미용관련 교육자를 희망하는 학생이 23.6%, 대학원진학을 원하는 학생 8.8%의 순서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용과 관련한 직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후 취업희망분야를 보면, 헤어디자이너를 희망하는 학생이 39.0%로 가장 많았고, 메이크업 전문가를 희망하는 학생이 30.8%로 그뒤를 이었다. 그리고 피부관리사를 희망하는 학생이 18.7%를 차지하였다.

〈표4-6〉 미용직업 인식

	N	평균	표준편차
전문성의 사회적 인정	182	3.66	0.87
보람찬 직업	182	4.14	0.73
경제적 보상	182	2.74	0.94
전망	182	3.92	0.75
평생직업의 가치	182	3.95	0.76
진로 긍정성	182	3.90	0.68
추천의사	182	3.36	0.77

미용의 직업인식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보면, 미용사가 보람찬 직업이라는 인식이 5점 만점에 4.14로 나타났고, 평생직업의 가치가 3.95, 미래의 직업전망이 3.92, 진로의 긍정성이 3.90으로 나타나 미용사에 대한 직업인식은 매우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의 사회적 인식은 3.66, 주변에의 추천의사는 3.36으로 나타나 사회적 인식은 낮게 평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더욱이 경제적 보상에 대한 평가는 2.74로 나타나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은 미용사의 직업인식에 비해 경제적 보상이 미약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4-7〉 미용사의 요구 자질

	빈도	퍼센트
성실성	65	35.7
협동심	4	2.2
능력과 기술	69	37.9
원만한 대인관계	14	7.7
서비스 마인드	28	15.4
기타	2	1.1
합계	182	100

미용사에 요구되는 자질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보면, 미용능력과 기술이 37.9%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자질로 나타났으며, 성실성이 35.7%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서비스 마인드도 15.4%로 높게 요구하는 자질로 판단하고 있었다.

3) 미용 교육방법에 대한 인식

(1) 미용전공 선택 특성

〈표4-8〉 연구대상의 전공특성

구 분		빈 도	유효 퍼센트
전공	피부 관리	45	24.7
	헤어	61	33.5
	메이크업	60	33.0
	네일 아트	16	8.8
	합계	182	100.0
전공 선택이유	적성에 맞아서	74	40.7
	장래의 직업계획과 관련이 있어서	67	36.8
	수입이 좋아서	11	6.0
	사회적 평가가 높아서	1	0.5
	주변의 권유로	7	3.8
	기타	22	12.1
	합계	182	100.0

연구대상의 전공 특성을 살펴보면, 선택하였거나 선택하고자 하는 전공으로는 헤어가 3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메이크업 33.0%, 피부 관리 24.7%, 네일 아트 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 선택의 가장 큰 이유로는 적성에 맞아서가 40.7%, 장래의 직업계획과 관련성이 36.8%, 기타 12.1%, 수입이 좋아서가 6.0%, 주변의 권유가 3.8%, 높은 사회적 평가가 0.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공 선택은 적성과 직업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표4-9〉 미용 공부 동기

	빈도	퍼센트
미용이 좋아서	125	68.7
부모님의 권유로	14	7.7
친구나 친지의 권유로	9	4.9
선생님의 권유로	2	1.1
대학진학을 위해	14	7.7
기타	18	9.9
합계	182	100

미용을 공부하게 된 동기를 보면, 미용이 좋아서가 68.7%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부모님의 권유와 대학진학을 위해서가 7.7%로 그 뒤를 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미용전공학생들이 미용을 공부하는 이유가 본인의 선호에 있음이 연구결과 나타나고 있다.

(2) 미용교육에 대한 인식

〈표4-10〉 미용교육 인식

	N	평균	표준편차
일반인의 인식도	182	3.83	0.89
전공만족도	182	3.58	0.80
관심도 증가	182	3.54	0.87
교과과정만족도	182	2.81	0.85
교수방법만족도	182	3.10	0.85

현재 미용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3.58로 나타났고, 전공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아졌는가에 대한 응답도 3.54로 나타나 미용전공에 대한 만족도와 관심과 흥미의 증가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의 교과과정에 대하여는 2.81로 보통이하로 만족이 나타났고, 교수의 교수방법에 대한 만족도도 3.10으로 보통정도로 나타나 교과과정과 교수방법의 개선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연구대상이 미용관련 학과에 입학하려고 할 때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1에서 5에 이르는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3.83으로 나타나 주위에서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3) 미용교육교과에 대한 인식

〈문4-11〉 미용교육 과정의 인식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교과목의 난이도	미용실기	73	40.1
	미용이론	50	27.5
	기초과목	12	6.6
	외국어	47	25.8
미용기술에 대한 인식	아주 힘들다	35	19.2
	노력하면 잘 될 것 같다	116	63.7
	터득하면 잘 될 것 같다	21	11.5
	잘 모르겠다	10	5.5
실기평가기회	비교적 많다	12	6.6
	별로 기회가 없다	95	52.2
	적당하다	44	24.2
	학교의 더 많은 기회요구	31	17
합계		182	100

미용교과목 중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미용실기가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미용이론이 27.5%, 외국어가 25.8%로 그 뒤를 이었다. 미용기술의 습득에 관해서는 노력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63.7%로 가장 많았고, 아주 힘들다는 학생이 19.2%로 나타나 힘들지만 노력하여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많았다. 미용실기 평가의 기회를 보면, 별로 기회가 없다는 학생이 52.2%로 가장 많았고, 적당하다는 학생이 24.2%로 나타나 더 많은 실기평가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리라고 판단된다.

2. 차이분석

1) 외모관리 인식과 직업의식간의 연관성 분석

연구문제 1) 미용전공 대학생의 외모관리 인식에 따라 그들의 직업의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표4-12〉 신체관리 인식에 따른 직업의식 차이검정

구분		집단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통계량	유의 확률
유전적 요인	직업의식 전문성	부정	42	3.88	0.89	3.031	0.050(*)
		보통	101	3.66	0.83		
		긍정	39	3.41	0.91		
	미용전공 추천의사	부정	42	3.67	0.85	5.492	0.005(**)
		보통	101	3.32	0.65		
		긍정	39	3.13	0.89		
외형적 요인	직업의 전망성	부정	9	4.00	1.12	3.039	0.050(*)
		보통	82	3.77	0.67		
		긍정	91	4.04	0.76		

(*)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

외모관리 인식 중 선천적 인식요인은 직업의식의 전문성 및 미용전공추천에 대해 유의수준 5%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또한 외모관심도 요인은 직업의 전망성에 대해 유의수준 5%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외모가 선천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데 긍정적인 집단은 직업의식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가 3.41점으로 나타났으며, 보통 집단은 3.66점, 부정집단은 3.88점으로 나타나, 외모가 선천적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직업의식

의 전문성에 대해 낮게 평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전적요인의 긍정집단은 직업의식의 미용전공추전에 대한 평가가 3.13점으로 나타났으며, 보통 집단은 3.32점, 부정 집단은 3.67점으로 나타나, 신체관리 인식을 유전적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용전공추전에 대해서도 낮게 평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모의 선천성에 인식이 낮을수록 미용사의 직업인식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직업의식이 높은 결과 직업의 추천의사도 높다고 판단된다.

외모관심도가 높은 집단은 직업의 전망성에 대한 평가가 4.04점으로 나타났으며, 보통 집단은 3.77점, 부정 집단은 4.00점으로 나타나, 외모관리 인식요인 중 외모관심도가 높은 사람들은 직업의 전망성에 대해 높게 평가함을 알 수 있다.

〈표4-13〉 선천적 인식요인과 진로에 대한 의견 교차분석

구분			진로에 대한 의견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전체
선천적 인식요인	부정	빈도		2	6	21	13	42
		%		4.8%	14.3%	50.0%	31.0%	100.0%
	보통	빈도			26	63	12	101
		%			25.7%	62.4%	11.9%	100.0%
	긍정	빈도	1		8	27	3	39
		%	2.6%		20.5%	69.2%	7.7%	100.0%
전체		빈도	1	2	40	111	28	182
		%	.5%	1.1%	22.0%	61.0%	15.4%	100.0%

외모관리 인식 중 선천적 인식요인은 직업의식의 진로에 대한 의견에 대해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4-13〉에서 보면, 외모가 선

천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50.0%, 매우 긍정적 인식이 31.0%로 높게 나타난 반면, 외모에서 선천적 요인을 중시하는 학생들은 미용직업의 진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69.2%,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7.7%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모가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학생들이 직업의 진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

〈표4-14〉 외모관심도와 희망진로의 교차분석

구분			희망진로					
			대학원 진학	미용관련 교육자	미용업 종사	전공과 관련없 는 직업	기타	전체
외모 관심도	부정	빈도	2		5		2	9
		%	22.2%		55.6%		22.2%	100.0%
	보통	빈도	9	16	47	3	7	82
		%	11.0%	19.5%	57.3%	3.7%	8.5%	100.0%
	긍정	빈도	5	27	57	1	1	91
		%	5.5%	29.7%	62.6%	1.1%	1.1%	100.0%
전체		빈도	16	43	109	4	10	182
		%	8.8%	23.6%	59.9%	2.2%	5.5%	100.0%

외모관리 인식 중 외모관심도는 종사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외모관심도가 높은 학생들이 미용업에 종사하고자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고, 외모관심도가 낮은 학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 외모관리 실태와 직업의식간의 연관성 분석

연구문제 2) 미용전공 대학생의 외모관리 실태에 따라 그들의 직업의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표4-15〉 외모관리 실태에 따른 직업의식 차이검정(ANOVA)

구분		집단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통계량	유의확률
화장정도	직업 전망성	기초화장	32	3.81	1.08	2.730	0.045(*)
		부분화장	66	3.92	0.88		
		전체화장	72	4.04	0.92		
		화장을 않는다	12	3.42	0.89		
화장부분	경제적 보상	피부화장	72	2.54	0.98	3.445	0.010(**)
		눈화장	75	2.76	0.88		
		입술화장	5	2.20	0.84		
		얼굴윤곽수정	3	3.33	1.15		
		기타	27	3.22	0.85		
전문 관리실 경험	직업의 전망성	있다	65	4.15	0.75	10.569	0.001(**)
		없다	117	3.79	0.72		
	평생직업 가치	있다	65	4.12	0.84	5.335	0.022(*)
		없다	117	3.85	0.70		

(*)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

외모관리실태에 따른 직업의식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전체화장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직업전망이 5점 만점에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화장을 하지 않는 학생들의 직업전망은 3.4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화장의 부분에 따라서는 경제적 보상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얼굴윤곽수정에 중점을 두고 화장을 하는 학생들이 경제적 보상에 대한 인식

이 3.33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입술화장과 피부화장에 중점을 두는 학생들의 경제적 보상에 대한 인식은 2.20과 2.54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 관리실 이용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직업전망과 미용사 직업의 평생가치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 관리실 이용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직업전망과 직업의 평생가치는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외모관리에 적극적인 학생들의 직업의식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미용 교육방법인식과 직업의식간의 연관성분석

연구문제 3> 미용전공 대학생의 대학교육방법 인식에 따라 그들의 직업의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표4-16> 미용전공 만족도에 따른 직업의식 차이분석

구분		집단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통계량	유의확률
미용전공 만족도	평생직업 가치	매우불만족	1	1.00		5.204	0.001(**)
		불만족	29	4.03			
		보통	55	3.80			
		만족	88	4.03			
		매우만족	9	4.11			

(*)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

미용전공대학생들의 대학 교육방법 인식에 따른 직업의식의 차이를 분석

해 보면, 미용전공에 매우 만족하는 학생들의 미용사 직업의 평생교육가치를 4.11로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미용전공 만족도가 보통인 학생들의 평생직업가치에 대한 인식이 3.80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4-17〉 교과과정 만족도에 따른 직업의식 차이분석

구분		집단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통계량	유의확률
교과과정 만족도	경제적 보상	매우 불만족	3	4.00	1.73	2.832	0.026(*)
		불만족	6	3.50	1.38		
		보통	26	2.85	0.67		
		만족	88	2.69	0.91		
		매우 만족	59	2.61	0.95		

(*)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

미용 교과과정에 매우 만족하는 학생들의 미용사 직업의 경제적 보상을 5점만점에 2.61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미용 교과과정 만족도가 불만인 학생들의 경제적 보상에 대한 인식이 3.50과 4.00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4-18〉 교수지도 만족도에 따른 직업의식 차이분석

구분		집단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통계량	유의확률
교수지도 만족도	경제적 보상	매우 불만족	4	4.25	1.50	2.959	0.021(*)
		불만족	9	2.78	1.09		
		보통	60	2.78	0.83		
		만족	70	2.64	0.85		
		매우 만족	39	2.67	1.08		
	미용전공 추천	매우 불만족	4	4.25	1.50	3.155	0.016(*)
		불만족	9	3.11	0.60		
		보통	60	3.38	0.69		
		만족	70	3.20	0.79		
		매우 만족	39	3.56	0.72		

(*)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

교수지도 만족도에 따른 직업의식의 차이를 보면, 경제적 보상에 대한 인식과 미용전공추천의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교수지도에 만족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보상에 대한 인식이 불만족하는 학생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교수지도에 만족하는 학생들의 미용전공 추천의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4-19〉 주위반응에 따른 직업의식 차이분석

구분		집단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통계량	유의확률
주위 사람들의 반응	직업의 전문성	매우 반대	6	4.67	0.52	2.594	0.038(*)
		반대	31	3.81	0.83		
		보통	65	3.60	0.79		
		찬성	72	3.57	0.93		
		매우 찬성	8	3.63	0.92		
	경제적 보상	매우 반대	6	4.17	0.75	4.077	0.003(**)
		반대	31	2.81	1.01		
		보통	65	2.71	0.80		
		찬성	72	2.64	0.98		
		매우 찬성	8	2.50	0.76		

(*)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

입학 시 주위반응에 따른 직업의식의 차이를 보면, 직업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과 경제적 보상의 인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입학시 주위에서 반대가 심했던 학생들의 직업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주위에서 찬성한 학생들의 직업전문성에 대한 인식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위 반대에 무릅쓰고 미용을 전공으로 선택한데는 직업의 전문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적 보상에 대한 인식을 보면 주위에서 찬성한 학생들의 경제적 보상에 대한 인식이 반대한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4-20〉 미용공부동기와 희망직업 분야 교차분석

구분		종사하고 싶은 분야						전체
			대학원 진학	미용관련 교육자	미용업 종사	전공과 관련없 는 직업	기타	
미용 공부 동기	미용이 좋아서	빈도	10	28	80	1	6	125
		%	8.00%	22.40%	64.00%	0.80%	4.80%	100.00%
	부모님의 권유	빈도	2	6	6			14
		%	14.30%	42.90%	42.90%			100.00%
	친구의 권유	빈도	1	5	2		1	9
		%	11.10%	55.60%	22.20%		11.10%	100.00%
	선생님의 권유	빈도			2			2
		%			100.00%			100.00%
	대학진학 위해	빈도		2	10	2		14
		%		14.30%	71.40%	14.30%		100.00%
	기타	빈도	3	2	9	1	3	18
		%	16.70%	11.10%	50.00%	5.60%	16.70%	100.00%
전체		빈도	16	43	109	4	10	182
		%	8.80%	23.60%	59.90%	2.20%	5.50%	100.00%

미용공부동기와 희망직업의 교차분석결과를 보면, 미용이 좋아서 미용전공을 선택한 학생이나 대학진학을 위해 미용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 미용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희망 64.0%와 72.4%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모님의 권유나 친구의 권유로 미용을 전공으로 선택한 학생들은 미용관련 교육자를 희망하는 비율이 42.9%와 55.6%로 나타났다.

3. 회귀분석

외모관리 인식, 외모관리실태, 교육방법인식이 직업의식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표4-21〉 미용 직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회귀분석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37	0.48		4.94	0.00
외모관리실태	0.16	0.06	0.18	2.65	0.01(*)
교육만족	0.29	0.06	0.32	4.47	0.00(**)
선천적 인식	-0.13	0.07	-0.13	-1.93	0.04(*)
후천적 인식	0.06	0.06	0.07	1.01	0.31
외모관심도	0.14	0.06	0.16	2.22	0.03(*)
외모열등감	-0.03	0.06	-0.04	-0.48	0.63
종속변수: 직업의식					
F= 8.17, R-square=0.22, P=0.00					

(*)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

외모관리에 대한 인식, 외모관리실태, 미용교육만족도가 직업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면, 외모관리인식 중 선천적 인식요인과 외모관심도, 외모관리실태, 교육만족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미용교육만족도는 직업의식에 회귀계수 0.32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모관리실태는 0.18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로 나타났다. 외모관리인식요인 중 외모관심도는 0.16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외모를 선천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직업의식에 -0.13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용 직업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요인은 미용교육 만족도이고, 외모관리실태, 외모관심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요인은 외모의 선천성인식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결과 미용교육만족도가 높을수록, 외모관리실태가 높을수록, 외모관심도가 높을수록, 외모를 선천적 요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낮을수록 미용직업에 대한 의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미용 직업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미용교육이 강화돼서 학생들의 교육만족도가 향상되어야 하며, 학생들 스스로도 본인의 외모관리에 신경을 써서 외모가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요인이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4. 연구결과의 요약

먼저 미용교육에 대한 인식을 보면, 미용전공 선택의 가장 큰 이유로 적성에 맞아서와 장래의 직업계획과 관련성으로 나타났고, 미용의 공부 동기도, 미용이 좋아서가 가장 많이 나타나 대부분의 미용전공학생들이 미용을 공부하는 이유가 본인의 선호에 의해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미용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연구대상 학생이 미용관련 학과에 입학하려고 할 때 주위 사람들 반응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미용전공에 대한 만족도와 관심과 흥미의 증가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의 교과

과정에 대한 만족이 낮게 나타나 미용 교과과정의 개선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미용교육내용과 관련하여 미용실기 평가의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실기평가의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한다. 미용공부 중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미용실기, 미용이론, 외국어의 순을 보였으나 노력하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많았다.

그리고 미용직업에 대한 인식을 보면, 졸업 후 미용업 실무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고, 미용관련 교육자를 희망하는 학생이 그 뒤를 이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용과 관련한 직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취업희망분야는 헤어디자이너, 메이크업 전문가, 피부관리사의 순을 보였다. 미용사에 요구되는 자질은 미용능력과 기술, 성실성, 서비스 마인드의 순으로 중요시 하였다.

미용의 직업인식을 보면, 미용사가 보람찬 직업이고, 평생직업으로 전망이 밝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나 미용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특히 경제적 보상에 대한 평가는 매우 낮았다. 따라서 학생들은 미용사의 직업인식에 비해 경제적 보상이 미약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생들의 외모관리에 대한 인식을 보면, 외모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는 인식이 낮게 나타난 반면에 후천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아 긍정적 관리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다수의 학생들이 외모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어느 정도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현재 화장수준을 보면, 전체화장과 부분화장을 하고 있는 학생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피부화장과 눈화장을 중

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외모관리 방법은 운동과 다이어트가 대부분이었으나 얼굴의 미용관리나 성형수술을 시행한 학생, 그리고 미용 전문 관리실을 이용한 학생도 상당수에 이르렀다.

외모가 선천적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직업의식의 전문성에 대해 낮게 평가하였고, 미용전공추천의사가 낮았고, 직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따라서 외모의 선천성에 인식이 낮을수록 미용사의 직업인식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직업의식이 높은 결과 직업의 추천의사도 높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외모관심도가 높은 사람들은 직업의 전망성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었고, 미용업에 종사하고자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외모관심도가 낮은 학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화장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직업전망이 높게 나타난 반면, 화장을 하지 않는 학생들의 직업전망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얼굴윤곽수정에 중점을 두고 화장을 하는 학생들이 경제적 보상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입술화장과 피부화장에 중점을 두는 학생들의 경제적 보상에 대한 인식은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 관리실 이용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직업전망과 미용사 직업의 평생가치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외모관리에 적극적인 학생들의 직업의식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용전공에 매우 만족하는 학생들의 미용사 직업의 평생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고, 미용 교과과정에 만족하는 학생들의 미용사 직업의 경제적 보상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교수지도에 만족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보상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났고, 미용전공 추천의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입학시 주위에서 반대가 심했던 학생들의 직업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주위에서 찬성한 학생들의 직업전문성에 대한 인식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위 반대에 무릅쓰고 미용을 전공으로 선택한데는 직업의 전문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미용이 좋아서 미용전공을 선택한 학생이나 대학진학을 위해 미용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 미용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희망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모님의 권유나 친구의 권유로 미용을 전공으로 선택한 학생들은 미용관련 교육자를 상대적으로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미용 직업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요인은 미용교육만족도이고, 외모관리실태, 외모관심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요인은 외모의 선천성인식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 미용교육방법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외모관리실태가 높을수록, 외모관심도가 높을수록, 외모를 선천적 요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낮을수록 미용직업에 대한 의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미용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미용에 대한 직업의식을 분석하여, 전문적 미용인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교육의 실무적·교육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위의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는 미용 산업 및 직업인식과 관련된 연구논문 및 단행본, 연구기관 연구보고서 등을 수집하여 논리적 분석을 통해 이론적 기초로 삼고, 대학생의 직업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용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는 미용전공 대학생의 외모관리에 대한 인식과 실태, 그리고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미용전공 대학생의 직업인식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미용전공학생들이 미용을 공부하는 이유가 본인의 선호에 의해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고, 미용관련 학과에 입학 시 주위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용전공 만족도와 흥미에 비해 학교의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이 낮게 나타나 미용 교과과정의 개선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미용실기 평가의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실기평가의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한다.

셋째,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용과 관련한 직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희망분야는 헤어디자이너, 메이크업 전문가, 피부관리사의 순을 보였고, 미용사의 직업인식은 보람찬 직업이고, 평생직업으로 전망이 밝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나 미용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고, 특히 경제적 보상에 대한 평가는 매우 낮았다.

넷째, 학생들의 외모관리에 대한 인식을 보면, 외모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는 인식이 낮게 나타난 반면에 후천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아 긍정적 관리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다수의 학생들이 외모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어느 정도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전체화장과 부분화장을 하고 있는 학생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피부화장과 눈화장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외모관리 방법은 운동과 다이어트가 대부분이었다.

다섯째, 외모의 선천성에 인식이 낮을수록 미용사의 직업인식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직업의식이 높은 결과 직업의 추천의사도 높았다.

여섯째, 미용전공에 매우 만족하는 학생들의 미용사 직업의 평생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고, 미용 교과과정에 만족하는 학생들의 미용사 직업의 경제적 보상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교수지도에 만족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보상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났고, 미용전공 추천의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곱째, 외모관심도가 높은 학생, 미용이 좋아서 미용전공을 선택한 학생이나 대학진학을 위해 미용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 미용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희망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외모관심도가 낮은 학생, 부모님의 권유나 친구의 권유로 미용을 전공으로 선택한 학생들은 미용관련 교육자를 상대적으로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회귀분석결과 미용교육만족도가 높을수록, 외모관리실패가 높을수록, 외모관심도가 높을수록, 외모를 선천적 요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낮을수록 미용직업에 대한 의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미용 직업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미용교육이 강화돼서 학생들의 교육만족도가 향상되어야 하며, 학생들 스스로도 본인의 외모관리에 신경을 써서 외모가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요인이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용교육과 관련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미용학과 학생들은 전공선택이 적성과 진로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들의 미용직업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학생들의 긍정적 전공선택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공을 세분화시켜 전문성을 함양하여 미용교육을 내실을 기해야 하는 교과과정의 검토를 거친 후 시대의 흐름과 국제적 감각에 맞는 교과목을 보충하여야 한다. 더욱이 학생들의 직업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교육만족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기 교육부분을 각 전공별 커리큘럼을 재구성하고 실습시간을 전공 분야에 치중하며 학교내 미용실 운영이나 산학협력 단체와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실기 교육과 평가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용관련학과의 교육과정은 미용관련 분야의 진로의 다양화 및 전문화에 맞도록 해당하는 교과목의 기초, 심화, 연구, 분석의 단계별로 구성하고, 학생의 수준에 따른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다양화하는 수준별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학생들의 직업의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외모관리에 대한 인식과 실태가 중요하게 나타났다. 미용과 관련한 직업을 희망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외모에 대한 인식과 통제가능성에 대한 신념이 이들의 향후 직업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직업인이 타인의 외모를 관리한다는 것은 모순이기도 한 것이

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외모관리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자기외모에 대한 관심과 개선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자기계발과정으로 내·외적인 인성교육을 위해 서비스 예절, 미용 심리학, 미용미학, 이미지 스타일링 등과 같은 교과목을 배정하고, 기초체력을 단련하면서 신체관리를 할 수 있는 요가, 스포츠 댄스, 에어로빅, 수영 등과 같은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올바른 전문직업인의 가치관을 심어준다.

넷째, 학생들은 직업의식은 높았던 반면, 직업에 대한 사회적 평가 특히 경제적 보상에 대한 평가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미용선진국들에 비해 한국사회에서 미용전문가에 대한 인식이 누구나 기술을 연마하면 미용인이 될 수 있다는 전문성에 대한 인식결여인 것으로 보인다. 기술을 습득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전문 기술인이 될 수는 없다.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인 디자인의 발상을 근거로 기술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용인으로서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문의 전문화, 자기능력의 개발(외국어 및 디자인 등), 미용정보의 습득, 취업의 세계화 등으로 눈길을 돌려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정책 측면에서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찍부터 교육 개혁을 추진해온 선진 외국의 경우처럼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틀을 설정해주고, 직업의식의 미용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의 지속적인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직업의식에 대한 체계적인 교수지도 방법이나 교과과정을 편성 하므로써 졸업 후 낮은 현장 적응력으로 나타나는 이직률을 개선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강혜원(1995), 「의상사회심리학」, 교문사.

김은실(2001),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서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김충기(1995), 「미래를 위한 진로교육」, 서울: 양서원.

이민화(1996), 「향장품과학입문」, 서울: 신광출판사, p. 17.

임숙자(2000), 「바디 이미지-발전, 일탈, 변화-」, 교문사.

정우현·구병림·이무근(1993), 「직업기술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홍기영·이승우(1985), 「진로지도」, 교육출판사.

<연구논문>

강금옥(2004), “우리나라 미용교육과 미용산업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광주여대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길형석(1999), “진로교육의 실제 중등학교의 진로교육”, 「교육마당 21」, 9월호.

김용주(1999), “여대생의 신체이미지에 따른 의복추구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주(2001),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익태·김기수(2000), “2000년 소비자 소비추세와 유망상품조건”, 한국소비자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해진(2003), “신체이미지에 따른 신체관리행동”, 아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록(2003), “피부미용 관련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원격향장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미(1993). “우리나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의식구조-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1(1),
- 박은아(2000), “광고모델과 소비자의 신체이미지 차이에 따른 광고효과”,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방선희(2005), “미용학과 대학생의 의식구조”, 한남대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영신(1997). “소비자 광고 속의 신체이미지: 아름다움의 담론“. 「사회비평」, 17,
- 안영희(2004), “미용관련 4년제 대학 교육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상화·나은영(2002), “대중매체 소비가 여대생의 신체변형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 매개 과정“, 「한국심리학회지」 3(2),
- 이수진(2004), “미용관련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의식과 직업관”, 중앙대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애숙(2003), “전문대학 미용관련학과 학생들의 신체 만족도와 외모 관심도에 대한 조사연구”, 중앙대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미(2003), “고등학교 여학생의 미의식 및 미적행위 연구”, 중앙대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옥(2004), “대학의 피부관리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연구 : 학생·현직 종사자·교수의 인식도 차이를 중심으로”, 대구한의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우동(2005), “국·내외 대학생의 헤어관리 방식에 따른 미용문화 의식 연구”, 대구가톨릭대 보건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자(2004), “네일 아티스트의 직무 만족에 관한 연구”, 용인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1999), “여대생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화장품소비행동의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근백 등(1995), “인천시내 중, 고등학생들의 다이어트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분석”, 「가정의학회지」 16권 4호,
- 조기년(2004), “직장여성의 외적 Self Image Making 인식정도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 보건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선명(2000).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가 의복추구행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선진(1997), “일부 여대생의 비만수준 및 체중조절형태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표은영(1987), “공업고등학교 학생과 직업훈련원생의 직업가치관 및 직업선정태도에 관한 연구”, 경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영숙(1997). “수도권 전문대학 미용관련과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 조사연구“, 「한국미용학회지」, 3(1),
- 허미영(1997), “여성의 체형관리경험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외국문헌>

- Cash, Y. F. & Pruzinsky, T.(1990). Body Images: Development, Deviance, and Change. NY: Guilford Press.
- Cox, C. L.,& Glick, W. H(1986). Resume evaluations and cosmetics use: When more is not better. *Sew Roles*, 14,
- Fallon, A. E. & Rozin, P.(1985). Sex Differences Inperceptions of Body Shap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4,
- Fisher, S.(1986). Development and structure of the body imag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Kaiser, S.(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NY: Macmillan.
- Ketton, W. P., Cash, T. F., & Brown, T. A. (1990). Body image or body images? comparative, multidimensional assessment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2),
- Lennon, S. J., Rudd. N. A. Sloan, B. & Kim, J. S. (1999). Attitudes toward gender roles, self-esteem, and body image: Application of a mod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7(4),
- Stice, E., Shaw, H. E., & Nemeroff, C. (1998). Dual pathway model of bulimia nervosa: Longitudinal support for dietary restraint and affect-regulation mechanism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7,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미용전공 학생들의 외모관리인식이 직업의식에 미치는 영향』라는 석사학위논문을 준비하면서 미용전공 학생 여러분의 직업의식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본 설문지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문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응답하신 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설문에 응해주심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05년 월

연구자 윤 정 희 올림

I.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배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답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을 기입해 주십시오. 만 ()세
3. 귀하의 학년은? ()학년
4. 귀하가 선택하였거나 선택하고자 하는 전공은?
 ① 피부관리 ② 헤어 ③ 메이크업 ④ 네일아트
5. 귀하가 4번 문항에서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적성에 맞아서 ② 장래의 직업계획과 관련이 있어서
 ③ 수입이 좋아서 ④ 사회적 평가가 높아서
 ⑤ 주변의 권유로 ⑥ 기타()

II. 다음은 미용전공 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답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가 미용을 공부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① 미용이 좋아서 ② 부모님의 권유로
 ③ 친구나 친지의 권유로 ④ 선생님의 권유로
 ⑤ 대학진학을 위해 ⑥ 기타()

2. 미용관련 학과에 입학하려고 할 때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 ① 매우 찬성했다 ② 찬성했다 ③ 그저 그렇다
- ④ 반대했다 ⑤ 매우 반대했다

3. 현재 미용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이다.
- ⑤ 매우 불만족이다.

4. 처음 미용을 시작했을 때와 현재를 비교하여 전공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 ① 매우 높아졌다 ② 높아졌다
- ③ 보통이다 ④ 줄었다
- ⑤ 매우 줄었다.

5. 미용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과과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이다.
- ⑤ 매우 불만족이다.

6. 미용학과 교수님들의 지도와 교수방법에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이다.
- ⑤ 매우 불만족이다.

3. 미용은 고객들의 미를 향상시키고 삶의 만족을 높이는 보람찬 직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 ③ 보통이다 | ④ 아니다 |
| ⑤ 전혀 아니다 | |

4. 미용인은 그의 직업에 대한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 ③ 보통이다 | ④ 아니다 |
| ⑤ 전혀 아니다 | |

5. 미용은 전망이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 ③ 보통이다 | ④ 아니다 |
| ⑤ 전혀 아니다 | |

6. 미용은 평생직업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 ③ 보통이다 | ④ 아니다 |
| ⑤ 전혀 아니다 | |

7. 귀하의 장래 진로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

- | | |
|------------|------------|
| ① 매우 긍정적이다 | ② 긍정적인 편이다 |
| ③ 보통이다 | ④ 부정적이다 |
| ⑤ 매우 부정적이다 | |

8. 후배나 형제에게 미용전공으로 입학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까 ?

- ① 매우 추천하고 싶다 ② 추천하고 싶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추천하고 싶지 않다
⑤ 전혀 추천하고 싶지 않다

9. 졸업후 취업하고 싶은 분야는 무엇입니까 ?

- ① 헤어 디자이너 ② 피부 관리사
③ 메이크업 전문가 ④ 화장품 관련회사
⑤ 전공과 다른 분야

10. 미용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항 중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 ① 성실성 ② 협동심
③ 능력과 기술 ④ 원만한 대인관계
⑤ 서비스 마인드 ⑥ 기타()

IV. 다음은 귀하의 외모관리에 대한 인식과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답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체중은 대부분 유전인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 신체모습은 대부분 타고난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다.	1	2	3	4	5
3) 외모는 타고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4) 외모는 후천적 노력으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1	2	3	4	5
5) 외모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요가나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6) 외모관리를 위해 다이어트프로그램이 필요하다.	1	2	3	4	5
7) 외모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1	2	3	4	5
8) 외모관리를 위해서는 전문 미용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1	2	3	4	5
9) 외모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하다	1	2	3	4	5
10) 나는 나의 외모가 아름답게 보이도록 상당히 신경을 쓴다.	1	2	3	4	5
11) 나는 항상 내 외모를 의식한다.	1	2	3	4	5
12) 가능한 한 자신의 스타일을 자주 바꿈으로써 변화를 준다.	1	2	3	4	5
13) 멋진 외모로 남의 눈에 띄고 싶다.	1	2	3	4	5
14) 나는 나의 외모에 자신이 있다.	1	2	3	4	5
15) 내 얼굴을 고칠 수 있다면 고치고 싶은 부분이 많다.	1	2	3	4	5
16)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17) 외모 때문에 이성을 만날 때 신경이 쓰인다.	1	2	3	4	5
18) 외출할 때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 힘이 빠진다.	1	2	3	4	5

① 기초화장(스킨, 로션, 아스트란젠트)만 한다
 ② 부분화장(눈썹, 입술)만 한다
 ③ 전체화장을 다 한다
 ④ 전혀 화장을 하지 않는다

①피부화장 ②눈화장 ③입술화장 ④얼굴윤곽수정
⑤기타()

①있다 ②없다

①얼굴 관리(마사지, 팩 등) ②전신 관리(목, 팔, 다리 등의 마사지, 팩)
③발관리 ④선택
⑤눈썹관리(속눈썹 올리기, 눈썹 문신 등)
⑥손톱손질(매니큐어, 패티큐어) ⑦기타()

① 다이어트 ② 운동(요가, 수영 등)
③ 성형수술 ④ 미용적 얼굴관리
⑤ 체형관리 ⑥ 기타()

① 매우 만족했다 ② 만족했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했다.
⑤ 매우 불만족했다.

ABSTRACT

A Study on Effects of Awareness of Appearance Management on Professional Consciousness and Beauty Education Methods

- Focusing on Beauty Design Major College Students -

Yun, Jung-Hee

Major in Make-up Art

Dept. of beauty art and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The increasing popularity of appearance beautification is acting as the driving force for people to take on various appearance management activities. Such phenomenon causes a lot of interests in the area of beauty and aesthetics and recognition of the academic values of the field. Thus, there are increasing interests among all beauty design professionals and educators for development of beauty design education methods.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beauty design major students for their professional consciousness for beauty design and to suggest practical and educational methods for improving the college education for training of high-quality beauty design professionals.

In order to achieve the study objectives above, literature studies and

empirical studies were conducted in parallel. Literature studies were conducted first to collect research papers, journals, research institute reports, etc. related to the beauty design industry and the occupational image and to perform logical analysis of the resources to constitute the theoretical foundation. Then, questionnaire-based surveys were conducted on beauty design major college students in order to inquire their awareness of the occupational image. The results could be summarized as below.

First, majority of the beauty design major students were found to study beauty design on their own initiatives, and they responded that improvements in the beauty design curriculum are needed the most.

Second, while most of the respondents viewed the beauty design career is quite rewarding and has good potentials as a life-long job, they indicated that the awareness of the society for beauty design career is relatively poor and that economic returns for it are very low.

Third, in terms of the awareness of the students on appearance management, many denied the notion that appearance is hereditary; the students had a positive view of appearance management, implying that appearance can and must be managed over the course of life.

Fourth, it was found that those with lower awareness of heredity of appearance tended to rate the occupational image of the beauty design career as professional. And, those with high professional consciousness were more willing to pursue their career in that field.

Fifth, it was learned that the view of the beauty design career was

high among the respondents with high satisfaction in beauty design education, high appearance management level, high interest in appearance management, and low recognition of appearance as a hereditary factor.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proposed for beauty design education.

First, in order to encourage positive selection of the major by students, the major needs to be sub-divided and incorporate professionalism. The curriculum needs to be revised to incorporate trends of the time and international senses as well as to become more substantial in its contents.

Second, the students' awareness and reality of appearance management were found to be highly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the students' professional consciousness. Therefore, the curriculum should be developed as a self-development course that helps students realize the importance of appearance management and encourage them to have more interest in their own appearances and make efforts for improvement. Subjects such as service etiquette, beauty psychology, beauty aesthetics, image styling, etc. should be allocated for internal and external character building and instillation of appropriate professional values.

Third, in order to promote social recognition of the beauty design career as a profession and secure adequate economic returns, paradigms must shift toward specialized education, self-development (for foreign languages, design, etc.), acquisition of beauty design information, and globalization of employment.